



강진 김영일



곡성 김광휘



구례 박진호



담양 박종영



무안 이기성



보성 안구일



순천/광양 김승호



순천/광양 황경석



여수 김석철

순천시 신청사 건립위치

확정 위한 공청회 개최

200여 명 참석...내년 1월초 부지 확정 발표



순천시가 최근 시청 대회의실에서 시청사 건립위치 확정을 위한 시민 공청회를 가졌다. 이번 공청회는 시민 대상 의견 청취를 위한 마지막 공청회로 일반 시민과 청사 편입예정부지 주민, 전문가, 시민단체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청사 건립에 대한 추진 현황과 추진계획을 보고하고 이차립 민주주의 기술학교 교장의 사회로 도시계획, 교통, 건축 등 분야별 초청된 패널들의 발제로 진행됐다. 이어 순천시의회 정홍준의원, 이현재의원, 전남동부지역사회연구소 장재열 소장, 임종필 정원산업과장이 참여한 가운데 새로운 시청사 건립에 대한 의견과 토론이 이어졌다. 이날 패널로 참석한 도시, 교통,

건축 전문가들은 각 부지별 장단점을 전문가적 관점에서 설명해 시민들의 시청사 위치 결정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 공청회에 참석한 시민들 대부분은 신청사 건립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시의 미래 발전과 원도심 도시재생에 가장 효과적인 부지를 선정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허석 순천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시청사 건립 위치 확정은 청사 건립의 실행단계로 들어서는 중요한 과정이므로, 위치 결정을 위한 시민들의 지혜를 모아줄 것"을 당부했고 함께 참석한 서정진 순천시의회 의장은 "시민의 충지를 모아 생태와 공생의 가치를 담은 내실 있는 청사가

건립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패널로 참석한 순천시의회 의원들도 "시민과 시의회 집행부가 하나로 마음을 모아 순천 미래 100년을 위한 시청사 건립에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시는 이번 공청회를 끝으로 지난해 7월부터 시작한 시민 의견 수렴을 마친다. 그 동안 전자투표를 통해 수렴한 공무원 의견과 다음 주에 있을 전문가 의견 수렴을 끝으로 시청사 건립에 대한 의견 수렴을 마칠 예정이다. 이렇게 수렴한 의견을 토대로 정책결정 과정을 거쳐 시정조정위원회 의결을 통해 위치를 확정하고 시 승격 70주년이 되는 내년 1월초 건립 위치를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 한편, 순천시 청사는 안전의 문제, 사무공간 협소, 주차장 부족 등 시민 불편 등으로 청사건립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그동안 여러차례 토론을 거쳐 행정의 연속성을 감안하고 시민과의 약속으로 기존 청사를 중심으로 건립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내년 초 위치가 발표되면 2019년 상반기 건립 규모와 형태 등을 정하기 위한 시민, 의회, 공무원, 전문가 토론을 거치고, 이후 타당성 검토와 투자 심사를 거쳐 2024년 상반기 준공 입주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순천=황경석 기자

광양시 '구 진월면사무소' 문화재 등록

지붕 목조트라스와 출입구 조형적 입면 구조 가치인정 받아



광양시는 '구 진월면사무소'가 최근 문화재청으로부터 등록문화재 제739호로 등록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등록된 '광양 구 진월면사무소'는 1936년 7월 7일(舊曆丁酉年七月七日)에 건축된

소규모 관공서 건물로 면적은 151.97㎡(중측부분 제외)이다. 특히 지붕의 목조트라스 구조가 원형의 모습을 잘 유지하고 있으며, 주출입구 부분을 조형적으로 처리한 독특한 입면 구성을 보이는 등 지역을 대표하는 근현대건축유산으로서 보존 가치가 충분하다고 인정됐다. 문화재청에서는 '구 진월면사무소'의 문화재 등록을 위해 지난 9월 문화재 전문가 초청 현지조사와 2018년 문화재위원회 근대문화

재분과 제9차 회의를 거쳐 지난 10월부터 문화재 등록 예고를 실시했다. 장형곤 문화예술과장은 "이번 '구 진월면사무소'의 문화재 등록을 계기로 원형에서 벗어나 변형된 부분은 철저한 고증을 통해 보수 정비하겠다"며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2019년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비를 문화재청에 신청하는 등 주변 문화유산과 연계한 역사문화공간과 관광자원으로 적극 활용에 나갔겠다"고 말했다. 한편 등록문화재란 건설·제작·형성된 후 50년 이상이 지난 것으로 보존과 활용을 위한 조치가 특별히 필요해 등록한 문화재를 말한다. 광양=황경석 기자

보성군, 화재로부터 군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 지킨다

지하식 소화전 지상식 교체

보성군은 농어촌 지역 소방용수 시설인 소화전 정비 작업을 12월 말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지하식 소화전을 지상식 방식으로 교체한다. 기존의 지하식 소화전은 도로 노면에 있어 화재가 났을 때 차량이 그 위에 주차가 되어 있는 경우 등 장애물이 있을 때에는 사용

하지 못하는 등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다. 군 관계자는 "보성군에 있는 238개의 소화전 중 아직까지 29개의 소화전은 지하식으로 사용하고 있었다"며 "이번 정비사업을 통해 보성을 4개소, 벌교를 9개소, 득량면 16개소 총 29개소를 정비하면 238개소 모두 지상식 소화전으로 관리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정비 사업은 군민의 소중

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소방법과 협조체계를 구축해 진행되며 사업비 1억 원이 투입된다. 소화전은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방차에 적재된 물 부족을 대비하기 위해 설치된 시설이다. 또한, 소방차가 진입할 수 없는 좁은 골목길 등에서도 원활하게 소방용수를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 보성=안구일 기자

순천 체육시설관리소, 겨울방학 '재능기부 체험 프로그램' 운영



순천시 체육시설관리소에서는 겨울방학을 이용해 초등학생 50명을 대상으로 배드민턴 테니스 등을 통해 건전한 여가 활동과 쉼 틈 없이 학원가를 전전하는 초등학생의 심신 단련을 위한 재능기부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운영기간은 2019년 1월 2일부터 2월 28일까지이며, 대상은 초등학교 4, 5, 6학년 50명이다. 시는 순천교육지원청과 협조해 모집인원 50명중 배드민턴 26명, 테니스 24명으로 구분해 운영하며 재능기부 지도자 2명이 전담 지도한다. 체육시설관리소는 월요일, 수요일, 08:30~10:00까지 올림픽 기념

관 2층의 배드민턴 코트를 제공하고 월요일, 금요일 10:00~11:30까지 테니스 실내 볼구장을 제공하는 등 각종 편의시설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순천시는 지난 2015년도부터 방학기간을 이용한 재능기부체험프로그램을 운영 결과 지금까지 4백여명의 학생들이 참여했으며, 재능기부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에게 건전한 여가활동의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체력향상 및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부모님의 경제적 부담까지 덜어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뒀다. 순천시 관계자는 "여름방학에는 종목과 수를 인원을 늘려 프로그램을 운영해 청소년들의 건전한 체육 활동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은 해당 초등학생은 순천시 체육시설관리소(061-749-8490)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순천=김승호 기자

광양경제청, 해룡산단 준공 지연 해결 노력

광양권경제자유구역청은 최근 해룡산단에 대한 일부 언론이 지적한 준공지연 사유는 사업시행자인 대우건설이 승인조건을 미이행한 것이 주된 원인이라고 밝혔다. 광양경제청은 해룡산단 준공 지연사유로 대우건설이 해룡산단에서 발생하는 폐수처리대체에 대하여 아무런 협의가 없다가 일방적으로 준공서류를 접수하였다. 해룡산단 폐수 유입시 신설 관로를 설치하도록 한 '폐수처리 기본계획' 승인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것. 또한 대우건설이 2·2단계 사업시행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고, 준공 이후 시설에 대한 관리주체를 제출하지 않아 유지관리에 대한 문제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광양경제청 관계자는 "해룡산단 부분준공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자인 대우건설과의 조속한 협의를 이끌어 임박한 준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광양=김승호 기자

구례군, 야생화마을 조성사업 평가회

봉서마을 구례군 대표 관광마을로 발돋움



구례군농업기술센터는 12일 구례읍 봉서마을에서 마을주민, 관계공무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야생화마을 조성사업 평가회를 가졌다. 이번에 조성된 야생화마을은 농

림축산식품부 창조지역사업으로 선정되어 8천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야생화를 자원으로 한 마을가꾸기 사업으로 '활기 있는 마을' 테마가 있는 마을로 조성하기 위하여 지난 5월 야생화마을 조성 컨설팅을 마쳤다. 야생화마을 추진위원들을 중심으로 로고를 새김꼴로 정하고 감나무길 500m, 대나무길 600m의 산책로를 조성하였으며, 마을입구에 걸이화분 배치와 골목길에 백일홍, 백리향 등 화분을 배치하는

등 마을환경정비와 함께 18㎡ 면적의 농산물전시판매장 컨테이너 제작 585㎡에 걸쳐 화단 및 기반을 조성하였다. 농업기술센터 박노진 소장은 "봉서마을이 야생화마을 조성사업을 발판으로 주민소득이 증대되어 더욱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야생화마을 추진위원회 김경연 대표는 "보조금 지원부터 사업완료까지 적극적인 지원에 감사드린다"며 "봉서마을이 관광객들의 발길을 멈추게 하는 구례군의 대표 관광마을로 자리매김 할 것이다"라며 포부를 밝혔다. 구례=박진호 기자

www.jepa.kr

전라남도비정규직노동센터를 운영했던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새롭게 도약합니다!

중소기업진흥원은 중소기업 성장지원으로 행복공동체 구현을 목표로 기업들의 매출증대가 고용창출을 낳는 선순환 경영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전라남도 출연기관입니다.

주소 |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3길 2(전남도청 옆)

- 무료법률상담**
 - 무당해고·임금체불 등 비정규직 근로자 노동 상담
 - 중대 사안 관계기관 권징
 - 구제신청 지원 및 의견제출(노동사·자문변호사)
 - 유관기관 연계를 통한 상담 무료 운영
- 취약근로자 권익보호·지원**
 - 근로조건 열악사업장 근로자 상담 및 법률지원
 - 감사단속적 근로자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 활동
 - 일용직 근로자 보호를 위한 임금체불 진정 상담 및 지원
- 최저임금·비정규직 차별신고센터 운영**
 -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에 대한 최저임금 위반사례 접수
 - 비정규직 근로자 상담을 통해 차별적 요소 확인 및 시정 요청, 행정기관 법률구제 신청을 위한 서면작성 지원 및 법률 자문
- 노동법률교육**
 - 근로자 및 사용자 대상 노동법 및 노사관계관련 교육 실시
 - 비정규직에 대한 인식개선 및 적법한 인사관리방안 안내